

대형마트 '갓성비' 설 선물...부담 줄이고 실속 챙긴다

이마트 광주점, 행사카드 최대 50% 할인·상품권 증정 등 혜택 롯데마트, 1만원대 극가성비 세트 판매...건강식품 1+1 판매도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대형마트들이 설 선물 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대형마트들은 고물가로 인한 지역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고려해 가성비 높은 제품에 주력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광주점과 롯데마트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홈플러스는 오는 30일까지 본판매를 진행한다.

우선 이마트 광주점은 행사카드를 통해 최대 5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결제 금액대별로 신세계상품권을 최대 50만원까지 증정한다.

광주점은 앞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기간 중 5만원 미만 가격대의 과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4.8% 오르고, 조미김 세트 등 1만원대 미만 극가성비 선물세트는 64.5% 신장한 점 등을 감안해 본판매에서도 가성비 높은 실속세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본판매에서는 과일류로는 '사인머스켓 3입·4입'을 지난해 설 대비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 판매한다. 축산세트를 대표하는 한우의 경우 행사카드 결제 시 10% 할인된 10만원대 초반 가격으로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한우플러스 소한마리 세트(1.2kg)'와 '한우1+ 스페셜 휴파티 세트(0.9kg)'가 있다.

또 수산세트 역시 고등어 혼합 선물세트를 새로 선보이고, '제주 옥돔·고등어 세트(1.29kg)', '제주갈치·고등어 세트(1.44kg)' 등을 10만원 미만 가격에 선보인다.

이밖에 도 각종 조미료 세트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2~4만원대 가성비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확대했고, 통조림세트 역시 '1+' 세트 물량을 3배 늘리는 등 가성비를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도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개시한다. 행사 기간 중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롯데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상품권 대신 즉시 할인혜택을 제

공한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기간 중 견과(20%) 및 견해산물(35%) 등 극가성비 선물세트 매출이 1년 전보다 크게 났 만큼, 본판매에서도 가성비 제품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본판매에서는 10만원 이하 축산 선물세트와 5만원 이하 과일 선물세트, 1만원대 극가성비 선물세트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명절 선물 단골인 주요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에 대해 '1+'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도 타 대형마트와 같은 16일 본판매를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행사 카드로 구매 시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황운기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이번 설 본판매의 경우 사전예약 당시 고객 수요에 따라 가성비 높은 선물세트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합매입, 사전기획, 상품 및 구성 변화 등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선물세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홍삼 세트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정관장 매장에서 직원들이 정관장 홍삼 제품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홍삼 주요 선물세트를 10~20% 할인하고, 구매금액대별 추가 할인, 농축액 구매 시 추가 포인트 적립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신세계,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한강 북라운지’ 운영

27일까지 대표작·추천도서 등 마련

광주신세계가 오는 27일까지 본관 1층 광장에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한강 작가의 책을 만나볼 수 있는 ‘한강 북라운지’를 운영한다.

한강 북라운지는 지난 2일부터 광주 출신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광주신세계를 찾은 시민들이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사진>

한강 북라운지에서는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흰’ 등 한강 작가의 대표작 15종과 한강 작가 추천 도서 5종 등 총 20여종의 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북라운지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강 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가 소개 및 대표작 설명부스 등도 마련했다.

이번 북라운지 운영 및 한강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랩’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내 마음에 울림을 준 한 문장’을 주제로, 북라운지에 비치된 책을 읽은 뒤 인상깊었던 구절



과 신세계 백화점 앱 아이디어를 메시지 카드에 적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한강 스페셜 에디션’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한강 북라운지 방문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한강 북라운지 운영이 종료되면,

구매한 도서를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며 “지역민들이 편하게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CU, 편의점 업계 최초 명절 주류 할인 행사

맥주 30%·위스키 40% 등

CU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업계 최초로 명절 한정 ‘대규모 주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용량 맥주, 인기 위스키, 증류식

소주 5종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구성됐다.

우선 대용량 맥주 할인 프로모션은 테라, 켈리, 필라이트 등 1.6ℓ 용량의 국산 맥주 상품들을 2개 이상 구매 시 30% 할인 판매하고, 발포주 번들 제품은 최대 40% 할인한다.

인기 위스키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CU는 행사 기간 중 ‘발베니 12년 더블우드’, ‘조니워커 그린’, ‘비발로 트레이스’ 등 7종의 위스키를 기존 대비 40%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밖에도 신년 기획 램피 에디션 와인 2종은 20% 할인하고, 독도 소주, 화요25도, 일품진로 1924 등 증류식 소주 5종은 최대 1만2000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설 간소화 상차림비 평균 20만3349원

4인 가족 기준 24개 품목 조사 전통시장, 마트보다 13.8% 저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설 명절을 보름 앞두고,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만 3349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4인 가족 기준이며, 기존보다 명절 차례상이 간소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24개 품목에 대해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다.

업체별로는 전통시장 18만 8239원, 대형유통업체 21만 8446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으로는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3.8%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애호박과 시금치가 전년보다 각각 18.6%, 6.2% 내렸고, 꽃감은 18.5%, 밤이 9% 하락했다.

소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전년 가격이 대폭 하락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보다는 올랐지

만, 한우·한돈 자조금 단체에서 설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0~50% 할인행사를 예정한 만큼, 조사 결과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도 오는 23~27일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더불어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하면 30% 할인가에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기관에서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조사 대상 지역, 품목, 규격 등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전문가조사 기관인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한 금액은 전통시장 30만 2500원, 대형유통업체는 40만 9510원으로 aT 조사 결과보다 각각 11만 4261원, 19만 1065원 비쌌다. 이는 양 기관의 조사 시기 및 장소의 차이와 더불어 aT가 차례상 간편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성수품목보다 적은 24개 품목을 조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